



도내 뮤지컬 극단 비상(의) 나라 피다

'수 컴퍼니', 2014년 창단 이후 4년여 안착기 거쳐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선정 6월·12월 정기공연 가져

2014년 창단된 뮤지컬 극단 '수 컴퍼니'가 4년여의 안착기를 거쳐 비상(의) 나라를 편다. 전북경제진흥진흥원의 인큐베이팅을 통해 이뤄진 수 컴퍼니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돼 활약하고 있는 단체다. 13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극단은 그간 창작 주크박스 뮤지컬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시작으로 김광석 tribute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뮤지컬 토크 걸라 콘서트 시리즈 '뮤지컬 Ep. 1, 2, 3

등 대중들에게 친숙한 곡으로 무대를 가져왔다. 이와 함께 'The Show Guy & Show Girl' '산장의 여인' 등 순수 창작 콘서트 물도 제작해 공연을 펼쳐왔다. 박근영 대표는 극단의 첫 공연으로 창작물이 아닌 걸라 콘서트를 선보인 데 대해 "대개의 경우 뮤지컬의 내용보다는 음악을 더 기억한다"며 "뮤지컬의 하이라이트를 통해 관객들에게 극의 큰 줄기를 전달하고 각인시키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는 "지난 4년여 간은 극단이 동자를 들고, 콘텐트를 만들고, 배우들과의 연기 호흡을 맞추며 활동의 토대를 다지는 시기였다"며 "이를 발판 삼아 올해를 성장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극단은 올해 6월과 12월 정기공연을 갖는다. 레퍼토리 강화 차원에서 밤을 잊은 그대에게와 김광석 tribute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등 같은 작품을 다시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우리 것, 신명과울과 대동의 힘

문화공간 기린, 오늘부터 25일까지 홍순무 화백 회고전

문화공간 기린미술관(관장 이현욱)이 6일부터 25일까지 서양화 작품 33점을 선보이는 '홍순무화백 회고전 - 우리 것, 신명과 울과 대동의 힘'을 연다. 한국 시각예술계 서양화의 원로거장 홍순무 화백은 문화공간 기린미술관 이현욱 관장의 남편인 박종렬 전 경북대학교 교수의 고등학교 시절 은사로, 미술 분야에 재능과 미감이 특출한 박교수를 지도했던 각별한 인연으로 이번 전시에 초대됐다. 이번 전시는 홍화백이 대학에 재학 중이던 1955과 1956년에 그렸던 인물화 1점, 풍경화 1점과 1970년대와 1980년대 작품 일부를 포함한 농악, 인물화, 풍경화 33점으로 구성됐다. 미술비평가 장석원은 전시 서문에서 "그는 다져진 데생 실력을 기반으로 한 유희로 인체 묘사에 탁월한 기량을 발휘해왔다"며 "그가 특별히 주목했던 소재는 어릴 적 고향인 고창 인근에서 심취했던 농악의 정경이다. 농악대를 묘사해 밖으로써 농경문화 고유의 흥취와 맛을 한껏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는 가장 향토적인 작가, 한국인의 토착적인 정서를 귀하게 여기는 작가로 꼽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홍 화백은 '농악'에 관심이 많았고 평생의 역작들 중 신명나는 농악대 작품이 많다. 농악대의 광경은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이 한데 어우러지는 공감각의 현상이다. 이에 매료되어 소리와 울동을 동반한 상태로 공간을 중흥 무진하는 한바탕 놀이를 캔버스에 담은 것이다. 작가는 인물들의 다채롭고 생생한 표정과 몸짓, 허연 무명옷이 벗겨 열린 채로 기쁨에 취한 농민 농악 현장의 모습을, 빼어난 구도와 색채표현을 통해 선보여 왔다. 특히 농사 일터에서 벌어지는 농민들의 농악을 담은 2000년을 전후한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볼록하게 빠져나오는 뱃살과 배꼽이 드러나는 농민들의 모습은 여유와 익살스러운 웃음을 선사한다. 홍순무 화백은 전북 고창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전주고등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였고 정년퇴임 후 작업에 전진해왔다. 한편, 문화공간기린의 대형 전시공간에서 이어지는 다음 행사로는 전주국제영화제 관련 전시로 '100 films 100 posters'가 진행 된다. /정해은 기자



Made in Jeonju 4월 상영작 2편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만남 - 방문

'Made in Jeonju' 4월 상영작으로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현용 감독의 '방문'과 홍수경 감독의 '최후의 만찬'을 선보인다. 이들 작품은 전주영화제작소의 2016년도 상·반기 후반제작 지원작으로, '방문'은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한곳에 모이게 되면서 벌어지는 긴장감 넘치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

7·14·21·28일 디지털독립영화관서 다. '최후의 만찬'은 할머니와 살고 있던 여고생 언지가 할머니의 실종 후 폭식증을 겪게 되고, 그런 언지의 걱정에서 찾아온 친구 지혜와 서로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면



최후의 만찬 - 두 여고생의 숨겨진 비밀

서 나타나는 에피소드를 그린다. 영화는 오는 7일과 14일, 21일, 28일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연속상영 된다. 각 회차 1시간 전부터 티켓박스에서 선착순(1인 1매)으로 좌석 지정을 받은 후 상영 시작 1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도깨비와 신명나는 마당놀이 한판

국립민속국악원 상설공연 이야기보따리 '깨비아! 놀자~'



국립민속국악원의 상설공연 2018 토요국악 초대석 이야기보따리에서는 '깨비아! 놀자~'를 만난다. '깨비아! 놀자'는 요술감투를 쓰고 마을에 놀러온 도깨비가 요술감투를 빌려주며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해 마을에서 쫓겨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전통놀이로 녹여낸다. 7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두 차례 국악원 예음헌에서 공연된다. 국악원 관계자는 "전래동화를 우리 전통의

몸짓과 장단으로 풀어내는 마당놀이"라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아대상 공연"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2018토요국악초대석 4월 무대에서는 서승미(경인교육대 음악교육과 교수)와 조경선(서울교육 음악교육과 교수)의 2인 음악회 '길을 가다'를 14일 '풍류마루'에서, 국악이상의 '이상적 풍류'를 21일 '국악타파에서, 이 지숙의 판소리 심청가를 28일 '판소리마당'에서 각각 만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회 6·13 지선 문화정책 공모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회가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에 담겨야 할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문화정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전북민예총이 2004년부터 매년 전국의 문화예술 활동가들과 함께 진행한 '문화정책 전국대토론회'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문화정책 제안은 이달 21일까지 해당 지자체, 정책의 제목과 내용, 제안자의 간략한 인적사항 등을 담아 메일(ex-hyl@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별로 제안된 시민의 의견은 5월 11일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리는 대토론회에서 소개된다. 이후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정·보완해 문화정책을 확정하고, PDF 문서로 제작해 전북도내 모든 후보자에게 전달 예정이다. 최기우 정책위원장은 "정책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위 소지자나 오랜 세월 현장에서 일한 전문가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정해은 기자



'굿모닝 우쿨렐레' 자선연주회

굿모닝 우쿨렐레단원들과 한국예술융합교육 연구회 회원들은 5일 봄맞이 자선연주회를 진행하며 기부 받은 리면 1000인분을 전주시 천사의집에 전달했다. 따뜻한 봄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고자 이뤄졌으며 후원된 리면은 천사의 집에 청소년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팔복예술공장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4시30분부터 펼쳐진 연주회는 군산, 익산,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주 팀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굿모닝 우쿨렐레단원들과 군산오카나라양상블 소리의 숲과 함께 솔로 및 단체곡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정해은 기자

2018 정음벚꽃축제

벚꽃 향기 흠날리는 정음! 벚꽃 눈짓 사랑 빠지다!

4. 6(금) ~ 4. 10(화) 5일간 정음천변 어린이축구장 일원

| | | | |
|-------------------|---|------------------------------|-------------------|
| <p>남진</p> | <p>소찬휘</p> | <p>라본</p> | <p>바다새</p> |
| <p>정주</p> | <p>조연비</p> | <p>이지은 (메이스트)</p> | <p>정용섭</p> |
| <p>김태연</p> | <p>개막식 및 축하공연 4. 6(금) 19:00 / 식전행사 17:30</p> | | |

벚꽃로 걷기 좋은 거리 4. 6(금) ~ 8(일)
 벚꽃 버스킹, 버블쇼, 캐리커처 인형탈, 애니멀 브라스밴드, 로맨틱 포토존, 길거리 DJ공연, 벚꽃사진 콘테스트

벚꽃 야간 경관 조명 3.31(토) ~ 4.15(일)

제22회 정음예술제 4. 6(금) ~ 4.10(화)

제14회 자생화전시회 및 제7회 자생차 페스티벌 4.6(금) ~ 4.10(화)

체험, 간식먹거리 및 농·특산물 판매 4.6(금) ~ 4.10(화)

차량통제안내

정주교 ~ 정동교

4. 6(금) 13:00~23:00

4. 7(토)~8(일) 09:00~23:00